

## 圖書館法の 制定을 促求한다

— 大學新聞 (352號) 社說 —

우리 政府의 過去 十餘年間의 施策에 있어서 根本的인 缺陷의 하나는 國民各自의 精神的 充實을 꾀하려는 努力이 매우 不足하였다는 點에 있다. 이러한 施策의 缺陷은 大學의 充實한 育成을 不可能하게 하였고, 國民生活에서 讀書과 精神的 修養을 爲한 努力을 脫落케 하는 代身에 國民으로 하여금 物質의 榮華에만 눈을 팔게 만들었다.

지난 十餘年 동안에 大學의 數는 대단히 늘고 그 物的 施設도 놀라울 만큼 擴張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大學의 質的 充實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었다. 特히 國立大學의 境遇에는 質的 充實은 姑捨하고 그날그날의 講義를 繼續하는데 必要한 豫算조차 充分치 못하여 大學 運營의 經費의 太半을 學生들의 納入金에 依存해온 것이 事實이다. 政府가 얼마나 大學의 質的 充實에 等閑하였느냐는 本欄에서 屢次指摘한 바와 같이 大學圖書館의 貧困性에 如實히 나타나 있다. 學生總數 七百名 未滿이었던 日政時代의 京城大學이 年間 約 五萬卷의 圖書를 購入하였음에 反하여 學生數가 一萬三千을 넘는 서울大學은 解放後의 年間 購入圖書가 平均 千卷에 未達한다. 그 結果 圖書館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古書를 保管하는 博物館으로 化하고 있다. 이와 같이 研究生活에 있어서 心臟의 役割을 해야 할 圖書館이 이와같이 癱瘓됨으로써 教授들의 研究도 自然히 萎縮되지 않을 수 없다.

教授들의 研究不足은 五, 一六以後에 如實히 들어나고 있다. 例를 들자면 지금 當面한 가장 時急한 問題가 經濟再建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經濟가 再建될 수 있는냐의 問題에 관해서는 意見이 百出하여 걸잡을 수 없는 모양이다. 이러한 現象은 무엇에 基因하느냐 지금까지의 實情을 보전대 文獻不足으로 깊은 研究를 하기가 어렵었을 것이고 또 豫算不足으로 우리나라의 經濟實態의 科學的 調査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個人的 「포켓머니」로 購入한 外國의 概論書 몇권을 밀친으로 이것을 풀어서 學生에게 講義해 주었고 지금 그 概論書의 知識을 가지고各自가 推測과 想像으로 머리에 그리는 韓國經濟에 適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勿論 韓國經濟의 實態把握이 正確하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見解는 갈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經濟學者들 間의 見解의 多岐性은 그 原因이 좀더 「베이스」한 면에 있는 것이다.

政府施策中에 國民의 精神的 乃至 內面的 充實을 期하게 하려고 하는 努力이 缺如되었던 것은 大學에 관해서만은 아니었다. 恒常 經濟第一主義를 標榜하는 나머지 國民生活의 모든 剖面에 있어서 精神的 糧食을 枯渴시키는 傾向이 많았다. 그 하나의 表現으로서 全國적으로 圖書館의 疲弊를 結果하였다. 解放 當時에 南韓地

域에 44개의 公共圖書館이 存在하였던 것이 지금은 18개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圖書館들도 모두 古書博物館으로 化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圖書館의 數는 人口 122萬名에 1個의 比率이다. 이것을 外國과 比較해보면 어떠한가.

▲西獨=6390 ▲佛=6萬7千3百 ▲美=2萬2千5百 ▲英=8萬9千3百 ▲벨지움=3千6百 ▲덴마크=3千2百 ▲터키=7萬9千 ▲蘇=千2百16 ▲핀란드=千百90人에 各各 圖書館하나로 되어 있다.

勿論 衣食住의 問題가 解決이 안되고는 精神의 問題를 論할 餘裕가 없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精神의 問題를 度外視하고 衣食住의 解決에만 全力을 기울이면 되는가. 現在의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問題거리가 物質的 貧困에 못지 않게 또는 그 以上으로 國民道義의 墮落 其他 精神의 貧困에 있다는 것을 누가 否認하겠는가. 그러면 이러한 狀態가 무엇에 基因하였는가. 過去의 政府施策이 經濟를 重視한다고 하는 나머지 精神面을 疎忽히 했던데에 가장 큰 原因이 있는 것이다.

지금 軍事政府도 經濟再建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自由黨政府나 民主黨政府의 前轍을 밟는 것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軍事政府는 「人間改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內容이 무엇이며 方案이 무엇인지는 漠然하다. 國民運動本部를 두고 國民運動을 展開하고는 있으나 그 活動이 沈滯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實踐要綱에도 國民各자의 머리속을 充實케 하려는 運動을 없애는 것 같다. 結局 現在로서는 國民의 精神의 糧食의 提供에 있어서 軍事政府가 過去의 政府보다 낫다고 認定할만한 또는 나으리라고 期待할만한 徵兆는 別로 없다.

이것은 軍事政府가 深刻히 再檢討해야 할 問題이다. 精神의 富饒이 物質的富饒으로

國家의 富強을 이룬다는 것은 絶對로 不可能하다. 그러면 軍事政府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國民皆讀運動을 強力히 展開할 것을 提唱하며 이를 뒷받침하여 全國의 市邑面마다 1個以上の 公共圖書館, 各級學校에 반드시 學校圖書館을 設置할 것을 促求한다. 現在 우리國民들의 生活를 보라 가장 많은 時間을 直接 間接으로 一에 몰칠하기 爲한 活動으로 보인다. 그 나머지 時間은 어떻게 보내는가 혼자 방에 들어 앉아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것은 그것을 職業으로 하는 사람 以外에는 매우 드물고 大部分은 茶房이나 사랑방이나 우물가 등에서 몇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며 보낸다. 그리고 그 話題中에서 相當한部分을 차지하는 것은 남의 險談이다. 이리하여 남의 功勞는 認定해 주지 않고 缺點만을 들추어서 헐뜯는 性癖은 더욱 助長된다.

時間을 이렇게 無意味하게 아니 有害하게 보내느니 보다 讀書로 보낸다면 얼마나 有益하겠는가 남의 일에 不必要하게 參견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때신 내 自身을 充實케 하는 것이 얼마나 賢明하겠는가 政治가 잘 되고 안되고를 決定짓는 것은 結局 國民의 知的水準如何에 있다는 것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國民運動中에서 가장 強力하게 推進되어야 할 것의 하나는 國民皆讀運動이다. 그리고 이 運動을 뒷받침 하여 國民各自가 책을 사는 힘이 모자라는 것을 補充해 주기 爲하여 적어도 市邑面마다 1個以上の 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 또 各級學校에서는 반드시 圖書館을 두어 讀書의 習慣을 기르는 同時에 讀書가 生活化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措處는 早速히 法을 制定함으로써 強制되어야 할 것이다. 家庭에서나 休憩室에서나 車中에서나 가는 곳마다 모든 國民이 저마다 책을 들고 읽게 될 때, 그때에는 우리겨레의 앞날에 새로운 運命이 確實이 約束될 것이다.